

임상적 경부전이가 없는 구강암에서의 파수꾼 림프절 조직검사의 유용성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
백정환 · 손영익 · 정한신 · 이승원 · 정만기 · 민진영

목적 : 임상적으로 경부전이가 없는 구강암에서 파수꾼 림프절 조직검사는 경부청소술 시행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. 하지만 이 방법은 파수꾼 림프절 조직검사의 방법에 따라 진단적 정확성이 다르므로 타 기관의 결과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각 기관 별로 이 방법에 대한 진단 능력의 검증이 필요하다. 본 저자들은 구강암 (특히 설암) 환자의 잠재적 경부 림프절 전이의 진단에 있어서 본원에서 시행한 파수꾼 림프절 조직검사의 진단적 정확성을 평가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.

재료 및 방법 : 2002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임상적으로 T1~2, N0 구강암 환자 15명(설암 14명, 혀부점막암 1명)을 대상으로 파수꾼 림프절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, 이 중 12명에서 경부청소술을 같이 시행하여 파수꾼 림프절 조직검사에 대한 진단 능력을 평가하였다. 수술 전 원발 병소 주변 4군데에 filtered tin 콜로이드 입자가 부착된 technetium 99m 0.6cc를 주사하여 림프 신티그래피를 시행 하였고 수술 시 감마 탐침을 이용하여 림프절 지도화를 시행하였다. 발견된 파수꾼 림프절은 별도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경부 림프절 조직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파수꾼 림

프절 조직검사의 진단능력을 평가하였다.

결과 : 수술 전 시행한 림프 신티그래피에서 파수꾼 림프절의 위치는 15명 중 14명에서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수술 중 감마 탐침 이용 시 15명 모두에서 위치 파악이 가능하였다. 평균 파수꾼 림프절의 개수는 2.4개였으며 위치는 동측 level II에 나타난 경우가 11명, level II, III에 함께 나타난 경우가 5명이었다. 15명 중 파수꾼 림프절 동결절편 검사 결과 악성 전이암으로 진단된 경우는 3명으로 파수꾼 림프절 외 다른 림프절의 전이는 없었다. 나머지 9명에서는 파수꾼 림프절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며 다른 림프절에서도 병리조직 검사, 면역형광염색 검사상 모두 음성이었다. 본원에서 시행한 파수꾼 림프절 조직검사의 진단적 정확도는 100%였으며 추적관찰기간 동안 경부 림프절 재발은 없었다.

결론 : 임상적으로 경부 림프절 전이가 없는 T1-2 구강암을 대상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파수꾼 림프절 조직검사는 모든 예에서 1개 이상의 파수꾼 림프절을 찾을 수 있었고(100%) 이 결과는 잠재적 경부 전이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였다.